

〈學術세미나要約〉

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김 욱 중*

Abstract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 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 이 변화·발전되어 오면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 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에 영향받은 White, Kates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 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 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앓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자,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여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데시, 이란, 중남미의 페루, 파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아와 나란히 중진 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 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 하와이대 지리학과(환경 및 정책연구 Program)